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과제명: 한·인도네시아 FTA 농수산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 출장목적

-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11년 5월 한-인니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하였고 2011년 7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니 CEPA 공동연구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한-인니 FTA는 한-인니 경제 통상 관계의 강화,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진출 확대에 있어 새로운 교두보 확보 및 인도네시아 자원 협력 및 투자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농림수산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산물의 수입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농산물은 인도네시아가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이 대부분 열대성 농산물이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러나 쌀, 대두, 팥콩, 고구마, 고추, 양파, 차, 담배 등의 일부 민감 품목과 망고, 오렌지, 바나나 등과 같은 국내 과일의 대체품은 인도네시아의 생산과 수출이 많아 수입 증대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의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한-인니 CEPA 협상에 대비하여 인도네시아의 수출담당 공무원 및 수출업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한-인니 CEPA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소·도매 시장과 마트 등을 방문하여 농산물의 가격 및 품질을 조사하여 한국으로의 수출 가능성과 국내산과의 대체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목적 : 한-인니 CEPA 협상 대비를 위한 인도네시아 내의 동향 파악

3. 출장지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4. 출장기간: 2011.12.06(화) ~ 2011.12.10(토)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연구원	정대희

6. 출장일정

날짜	이동	일정 및 면담	숙박
12.6(화)	인천→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도착 (23:05)	호텔
12.7(수)	현지이동	농산물 재배지방문(보고로 지역) - 고랭지 채소밭 농장 한국-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 방문	호텔
12.8(목)	현지이동	농수산물시장 방문(PASAR IKAN) 대형마트 방문 (간다리아시티, 라뚜플라자) 농업부 방문	호텔
12.9(금)	현지이동	브라이트 연구소 방문(왕립연구소) 해양수산부 방문	호텔
12.10(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인천		

7.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산림청 한국-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	국장	이장호	(62)21-57852991
농업부	국장대리	Yusral Tahir	(62)21-78830588
	국장	Komarudin Salamun	(62)812-9997893
	서기관	Ir. Andi Arnida M	(62)21-78837929
	사무관	Reynold P. Sitompul	(62)21-78830588
수산부	국장	Agus A. Budhiman	(62)21-3453008
	사무관	Saut Tampubolon	(62)813-19865116
	사무관	Erni Widjajanti	(62)813-16515113
브라이트 연구소	부원장	D.S.Priyarsono	(62)251-323080

II. 주요 출장 결과

1 부 : 인도네시아 개황

1. 인도네시아 개황

-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은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 말레이제도에서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동티모르는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1975년 인도네시아에 합병되었다가 1999년 8월 분리 독립됨. 행정구역은 30개주, 2개 준주, 1개 수도구로 구성되어 있음.
 - 종교는 이슬람(88%)이 대부분이고 개신교, 카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 등을 믿는 국민도 있음.
- 국토면적은 1,919,440km²로 우리나라의 19배이고, 인구는 2억 3,741만 명(2009년) 우리나라의 4.9배임. 그러나 2009년 국내총생산은 5,400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64% 수준임. 1인당 GDP는 2,349달러로 우리나라의 13.7%이지만 최근(2007~2009년) GDP 성장률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음.
 - GDP 성장률을 웃도는 높은 물가상승률(2007~2009년 평균 7.6%)과 실업률(8.5%) 등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음.
- 2009년 상품 수출은 2,152억 달러, 수입은 1,965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60% 수준임. 풍부하고 다양한 천연자원의 수출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의 상품 교역 무역수지는 2000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2008년 제외).
 - 2010년 기준 품목별로 원유와 천연가스등의 광물성 연료와 천연고무 등의 천연자원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자제품과 기계류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음. 수입품목은 인도네시아의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유, 기계류, 전기기기가 뒤를 잇고 있음.
- 농산물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0.9%에서 2009년 8.9%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농산물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농산물 수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농산물 무역수지는 2008~2009년 기간에 연평균 155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냄.

○ 경지면적은 4,260만 ha에 달하지만 농가당 경지면적은 0.9ha에 불과함. 우리나라의 1.1ha에 비해 20% 정도 작은 수준임.

- 농업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경지면적의 4배 가까이 되지만, 자원부족으로 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2. 인도네시아의 농산물 생산

○ 인도네시아는 농업국으로 취업인구로 보나 국민소득으로 보나 농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벼농사를 주로 하지만 전체 농지 중 관개수리 면적은 14% 수준으로 농업하부구조가 낙후되어 있음.

○ 농가의 영농규모가 평균적으로 영세하여 1ha 미만의 영농규모를 유지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농림업에서는 카카오, 카사바, 양배추, 코코넛, 쌀, 커피, 고구마, 콩, 담배, 차, 천연 고무, 옥수수, 파인애플, 바나나, 땅콩의 생산량이 많음.

○ 대규모의 플랜테이션 농업과 소규모의 농업으로 구성됨. 플랜테이션 농업은 이전에는 네덜란드인이 경영했던 것이나 현재는 대부분 기업국유화법으로 인도네시아의 소유가 되어 있음. 플랜테이션에서는 수출용의 고무, 커피, 사탕수수, 코프라, 담배, 코코아 등이 재배되고 있음.

○ 소규모 농업의 주요 산물은 국내 소비용의 쌀, 옥수수, 타피오카 등임. 식량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지 않아 쌀 수입량이 많음.

표 1. 인도네시아의 농산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쌀	생산량	51,898	54,151	54,455	57,157	60,251	64,399
	수입량	966	125	309	1,033	203	-
	수출량	1	42	1	2	2	-
옥수수	생산량	9,677	12,524	11,610	13,288	16,324	17,630
	수입량	1,265	186	1,775	702	287	-
	수출량	28	54	28	102	107	-
땅콩	생산량	1,292	1,467	1,470	1,384	774	778
	수입량	21	40	122	70	65	-
	수출량	3	5	2	5	8	-
고구마	생산량	1,828	1,857	1,854	1,887	1,877	2,058
	수입량	0	0	0	0	0	0
	수출량	7	11	11	8	8	9
매니옥	생산량	16,089	19,321	19,987	19,988	21,593	22,039
	수입량	0	0	0	0	0	-
	수출량	151	230	132	210	130	-
사탕수수	생산량	23,900	29,300	29,200	25,300	26,000	26,500
	수입량	0	-	-	-	-	-
	수출량	0	0	0	0	0	-
차	생산량	163	178	147	150	151	160
	수입량	3	5	5	9	7	-
	수출량	106	102	95	84	96	-
담배	생산량	146	153	146	165	170	181
	수입량	34	42	48	62	77	-
	수출량	36	50	52	46	50	-
커피	생산량	555	640	682	676	683	700
	수입량	13	2	5	48	6	-
	수출량	338	443	412	321	468	-
양배추	생산량	1,552	1,293	1,268	1,289	1,324	1,335
	수입량	0	0	0	0	1	0
	수출량	39	36	33	45	38	39
망고, 구아바, 망고스틴	생산량	876	1,413	1,622	1,819	2,013	2,150
	수입량	0	1	1	1	1	-
	수출량	0	1	1	1	2	-
오렌지	생산량	644	2,214	2,566	2,626	2,323	2,103
	수입량	20	30	26	24	28	-
	수출량	0	1	0	0	0	-
바나나	생산량	3,747	5,178	5,037	5,454	5,741	6,273
	수입량	0	0	0	0	0	-
	수출량	2	4	4	2	2	-
파인애플	생산량	399	925	1,428	2,238	1,273	1,558
	수입량	0	0	0	0	0	-
	수출량	3	1	0	0	0	-
기타	생산량	1,250	2,605	2,872	2,359	2,450	2,550

열대 과일	수입량	0	0	0	0	0	-
	수출량	7	8	6	9	10	-
야자수 열매	생산량	36,380	74,000	80,250	78,000	85,000	86,000
	수입량	-	-	-	-	-	-
	수출량	-	-	-	-	-	-

자료: FAO STAT <<http://faostat.fao.org>>

3. 인도네시아의 농산물 교역

-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 농산물은 곡물, 설탕, 유제품, 사과, 쇠고기 등임. 이 가운데 수입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곡물류로 밀, 옥수수, 쌀, 밀가루, 대두 및 대두박 등이 수입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수출 농산물은 대부분 열대 농산물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은 많지 않음. 주요 수출 농산물로는 팜유, 천연고무, 코코넛, 커피, 후추, 차, 파인애플 등임.
 - 팜유와 팜핵유의 수출은 2006~2008년 평균 90억 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농축산물은 3억 달러에 미치지 못함.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임(2008~2010년 평균).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 가운데 축산물은 전체의 0.2%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농산물임.
- 타피오카와 커피의 수입이 각각 6백만~7백만 달러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그밖에 우리나라 농산물과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실적은 없음.
-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이 대부분 열대성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곡물류 가운데 땅콩, 고구마, 과일류 가운데 파인애플, 망고, 오렌지, 바나나, 채소류 가운데 고추, 특용작물 가운데 차가 민감품목으로 검토될 수 있음. 그러나 축산물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부 : 인도네시아 현지 방문 결과

1. 인도네시아 농업부

- 인도네시아는 일본과의 CEPA를 통한 관세인하로 일본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고 하였고, 일본은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 확대를 통한 인도네시아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였음. 특히 일본은 인도네시아와의 농산물 협력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산물 부분에서 관세인하에서 이익을 얻었음.
 - 인니와 일본의 농산물 협력 사례 중 망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사례임.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망고 품종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5년간 시행하였음. 일본은 인니에 품종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였고 인니는 품종 개발에 성공하여 품질이 좋은 망고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의 농산물 수입 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출 실적은 큰 변화가 없다고 함.
- 인니는 한국과의 CEPA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였음. 특히 망고, 파프리카, 열대과일, 화훼류, 커피, 차 등의 한국시장 진출을 희망한다고 하였음.
 - 그러나 인도네시아산 바나나는 과거에 한국시장에 진출하였으나 한국 소비자들 선호에 맞지 않아 한국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파인애플의 경우에는 수출할 수 있는 만큼의 생산을 하고 있지 못함.
 - 현재 농업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Value Edi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품질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Value Edit 프로그램은 품질향상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증대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산 농산물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한편, 일본 농산물 시장의 에로사항을 환기시키며 한국 농산물 시장 진출은 비교적 용이 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하는 등 한국 시장진출에 높은 열의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과일 중 살락(Salak, Snake Fruit)의 한국 진출을 희망하였음.
살락은 뱀과일이라 불리는 과일인데, 인도네시아의 특산품으로 인니 농업부와 수산부 공무원들은 한국 시장 진출에 자신감을 보였음. 껍질의 모양이 흡사 뱀의 껍질과 비슷하며 껍질을 까면 과실은 마늘과 유사하게 생겼음. 식감과 풍미에서도 마늘과 유사하여 과실로서 한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없어 보임.

○ 쌀, 과일, 채소 등의 생산은 농가당 1ha 수준으로 경작을 하고 있으며, 팜, 고무, 차 등은 플랜테이션 형태로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쌀, 과일, 채소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개인이 소규모로 생산을 하였던 품목들도 플랜테이션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3~5년 후에는 수확량이 많아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인니는 한국과의 CEPA를 통하여 인니의 팜오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에 대한 투자보다는 비누, 식용유, 화장품 등과 같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고 있음. 인니에 팜오일 농장은 매우 많이 있으나 가공제품 생산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임.

○ 일본과의 CEPA에서 협력산업을 통하여 지원을 많이 받아 비용 절감에는 이익이 있었으나 가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보임.

○ 일본과 인니의 CEPA 이후에 ASEAN의 한 멤버로서 일본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ASEAN과 일본의 협상은 다자협상이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와는 ASEAN과의 FTA 이후 단독으로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열대과일과 같은 인도네시아 관심 품목들을 민감품목에서 풀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 또한 일본과의 CEPA에서는 공산업 부문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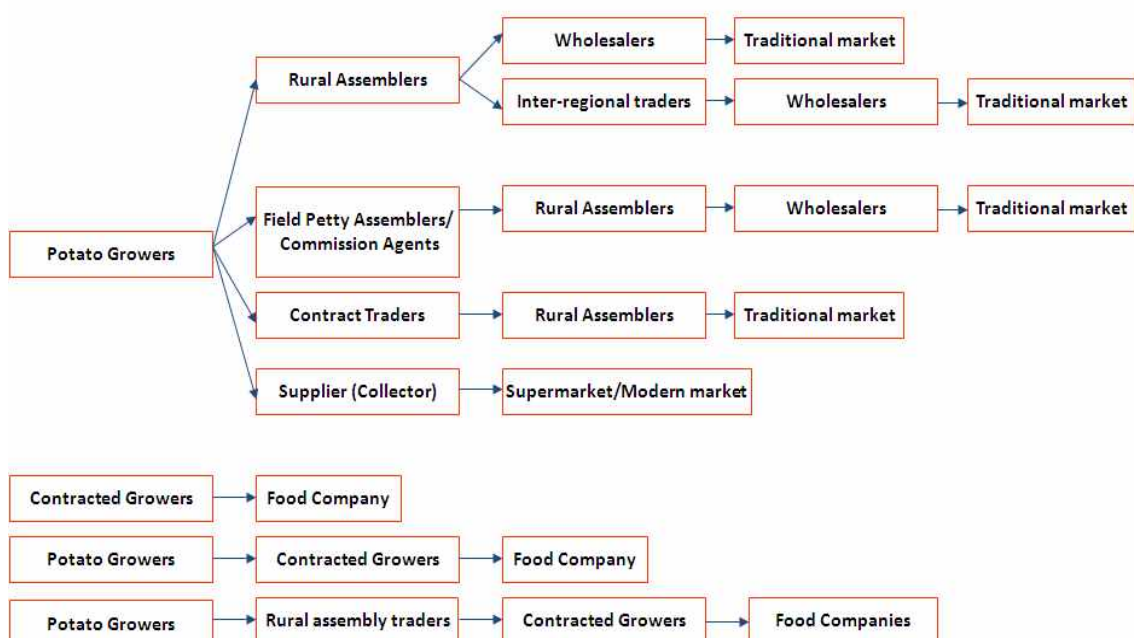
업이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과의 CEPA에서는 농수산물 부문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결과를 희망하고 있음.

- 한국과의 CEPA는 장기적으로 양국이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는 투자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함. 또한 신선 농산물의 수출뿐만 아니라 2차 가공품에 대한 수출도 희망하고 있음.

○ 현재 쌀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없으며, 공급 부족으로 베트남으로부터 쌀을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인도네시아산 쌀 수출은 1년에 약 10만톤 수준인데 고가의 고품질 쌀만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아아시아 등으로 소량 수출하고 있으나 일본은 쌀관세가 높아 시장 진출이 어렵다고 함.

○ 인도네시아의 농업 생산물 유통구조는 아래 감자 유통경로의 예와 같이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음. 주로 현지 생산, 지역 도시 집하장 혹은 산지 수집상, 도매시장, 소매시장을 거쳐 소비자로 흐르는 구조임.

Flow of Fresh Potato Distribution Channel



-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인삼가공품, 배, 사과 등이 인기가 많으며 최근에 롯데마트가 오픈하여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함.

2. 브라이튼 연구소 (Brighten Institue)

- 인도네시아의 브라이튼 연구소는 대통령과 몇몇 장관들이 설립한 연구소이며 대통령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 우리 연구원과 다른 점은 브라이튼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각자 개인의 원래 직업이 있으며 이날 면담한 Dr. Sony의 경우는 브라이튼 연구소 부소장이며 보고르 농대 교수임.
- Dr.Sony는 통상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의 CEPA는 양국이 서로 매우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음.
 - 일본 정부는 CEPA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 전략에 많은 지원을 주었음.
-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 전략(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 IEDCs)이란 인도네시아 전역을 허브(대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구, FTZ), 인프라(공항,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로 연결해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과거 국토개발과 유사한 사업임.
 - 2025년까지 연 7~8%의 경제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중심지를 거점으로 각종 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도로, 항만, 전기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6대 주요 섬들의 산업 특성을 바탕으로 6대 개발권역 중심의 개발전략산업을 설정하였으며 동부수마트라-북서부 자바(자원, 농업, 제조업), 북부자바(제조업), 칼리만탄(자원 및 농업), 서부

술라웨시(자원, 농업 및 어업), 동부자바-발리-NT(농업, 어업, 관광), 파푸아(농업, 자원)으로 구분됨. 특히 동부수마트라는 팜 오일 플랜테이션 밀집 지역임.

- 농업 부문은 팜 오일 및 고무 산업 발전이 제일 우선시 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수출할 수 있는 생산량이 부족한 수준이며 특히 커피, 팜 오일, 차 등을 제외하고는 열대과일과 같은 주요 생산 품목의 수출량이 미미한 실적임. 이는 인도네시아 기반 시설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유통 문제임.

- 자바섬 동쪽에서 생산하여 서쪽 자카르타로 운송해서 가져오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편이 더 저렴함. 이러한 유통 문제로 인하여 생산된 물량을 수집하고 수출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가격경쟁력이 없음.

- 따라서 인도네시아산 농산물이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고 특히 거리상 중국 보다 거리가 멀어서 물류비를 고려하면 중국산에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함.

※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도로가 사방으로 잘 뚫려있는 자카르타에서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교통체증 도시임. 출장 기간 중 현지 통역원도 예측할 수 없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약속 시간에 늦은 경우도 있었고, 불과 4km 남직한 거리를 40분이 넘게 걸리게 소요된

3. 한국-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

○ 한국-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에는 산림청에서 지난 1년간 연구원에 파견근무를 하신 이장호 국장님을 만나 간단히 면담하였음.

○ 인도네시아에는 밤, 대추, 감과 같은 임산물 생산이 없으므로 한-인니

CEPA에서 민감성이 요구되는 품목은 없음. 그러나 임업 부문에서는 살펴볼 품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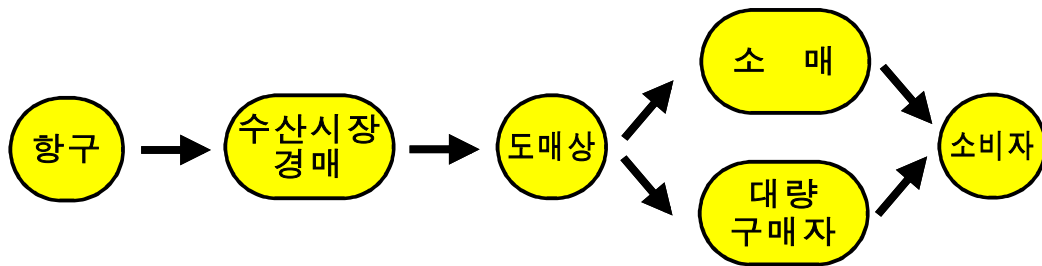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매우 다양하고 세계 열대림의 10%를 차지하는 수준임. 대부분의 산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림 허가는 특정 기간동안 민간이나 공공업체에 발급되는 형태임.
- 우리나라는 부족한 목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로 진출하였고 1987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임업협력을 해오고 있음.

4.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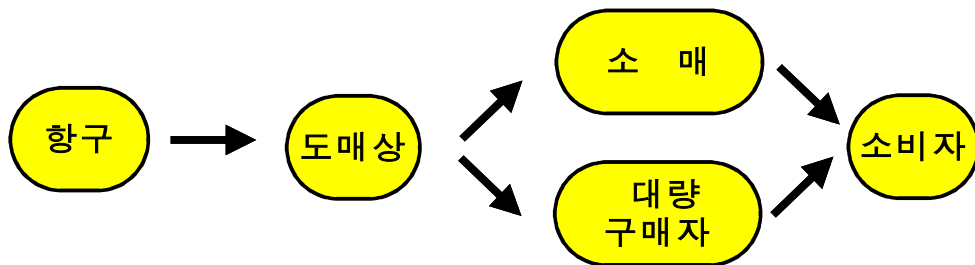
- 해양수산부는 당초 출장 일정에는 없었으나 농림수산물부 시장개척단의 요청으로 함께 참석하였음.
- 인니의 해양수산부는 한국의 농림수산물부와 수산협력 MOU와 관련하여 초안을 인니 외교부에 송부하고 우리나라와 수산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일본과의 CEPA 이후에 일본의 수산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산가공 시설을 이용한 수산물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가공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본, 중국, 대만, 태국, 한국이 참여하고 있음.
 - 전국에 약 816개의 어항이 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항구도 있음. 항구의 개수는 많으나 전기 등의 시설이 부족하여 유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도서들이 있으나 어항이 없는 지역도 많다고 함.
 - 95% 이상이 소규모 어업이며, 어획통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업일지를 개선하고 있음.
 - 어획물들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경로로 유통이 됨. 자바섬에는 수

산시장에서 경매 시스템을 통해 유통이 되지만 여타 지역에서는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자바섬>



<여타지역>



- 참치 등 일부 고급 수산물들은 냉장유통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수출 확대를 위하여 Single-window를 구축하여 수출 과정을 통합, 축소하여 수출기간을 기존 15일에서 7~8일 수준으로 단축하였음.

- Single-window 시스템이란, 특정 업무를 위해 전체 처리절차를 한 화면(웹사이트)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며 수출업무의 경우 통관, 검역, 선하증권, 수수료 납부 등의 전체 과정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함.

- 한국의 바다목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양국간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였음.

5. 남 자카르타 Citos Shopping Mall Food Mart

- 이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동일한 공간에서 소매, 도매를 칸막이로 구별하여 판매를 하고 있었음.
- 마늘, 풋고추와 같은 양념채소의 가격이 국내산에 비하여 저렴하며, 수박, 멜론, 바나나 등 과일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남.

표 2. 주요 품목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가격 비교

단위: 원/kg

품목	가격(인니)	가격(국내)	품목	가격(인니)	가격(국내)
생강	4,808	4,900~7,415	수박	2,520	15,592~18,402/개
고구마	1,584	3,000~7,000	멜론	2,140	8,800~54,000
마늘	1,805	5,700~6,520	바나나	126	1,250~3,000
감자	1,964~2,907	2,200~4,980	파인애플	1,400/개	-
풋고추	3,034	6,000~11,560	망고	2,390~5,070	-
백오이	919~1,387	4,000~9,930/10개	두리안	4,680	-
취청오이	2,724	6,667~11,791/10개	옥수수	1,710	-

* 국내가격정보 : 농수산물유통공사 소매가격 기준

* 음영처리 3개 품목(백오이, 취청오이, 수박)은 단위가 상이하여 비교불가

※ 매장내에서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여서 사진을 확보가 어려웠음

6. 고랭지 채소밭 농장

- 현지 농장의 경지면적은 20ha 수준이었으나 모두 임대인 형태임.
- 열무, 배추, 무, 옥수수, 잣나물, 시금치, 호박, 당근, 얼갈이, 대파, 고추 등 60여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 수요가 많다고 함. 주요 구매자는 한국교민들이며 시내에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마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음.
- 농장의 일일 임금은 남자 3,000원, 여자 1,500원으로 한국에 비하면 매

우 낮은 수준임.

- 해발 800~1,200고지로 타지역보다 기온이 낮아 채소류 재배에 적합. 특히 고지대에서는 주로 배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랭지(태백시 귀내미) 처럼 경사가 심해 비가 많이 올 경우 작물이 쓸려가서 재파종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 고지가 높은 고랭지의 경우는 관개시설이 열악하여 급수에 문제가 있으나, 이곳은 고지대까지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 급수에 유리함
- 중간 판매상 없이 한국 마트, 식당 등에 직접 납품

○ 인도네시아 소득계층은 빈곤층(80%), 중류(15%), 상류(5%)으로 구분이 되며 국민소득은 낮지만 소비성향이 강한편이라고 함.

○ 고랭지 지역(해발800-1,200m)의 토양은 비옥하나 기계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경사가 심해 비가오면 토양유실 심각한 수준임.

- 전반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채소의 품질은 국산 농산물에 비해서 아주 낮으며 재배기술 또한 낙후함. 기계화가 곤란한 경사지 급한 지역으로 주로 노동력에 의해서 재배하고 있었음.
- 개발은 가능하지만 방치된 농지가 곳곳에 보였음.

<참고>

구 분	기 간	내 용
■ 토지임차권(Leasehold)* * Hak Guna Usaha	최장 95년 (최초 60년, 35년 연장 가능)	• 플랜테이션, 어업, 목축업을 위해 국유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담보 제공 및 제3자 양도 가능
■ 토지사용권(Right of Use)* * Hak Pakai	최장 70년 (최초 45년, 25년 연장 가능)	• 용도 제한 없이 국유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담보 및 양도 불가
■ 임차(Lease)*계약 * Hak Sewa * Kontrak	계약서 명시 기간 *농지 대체로 1년 *대체로 1년 이상	• 토지 및 건물에 적용 • 계약서의 임차기간은 법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담보 및 양도 불가



<고산지대 채소밭>



<경작지>



<경작지>



<인도네시아 배추>

3 부 : 인도네시아 출장 소감

- 인도네시아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 세계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국가임.
 - 자카르타 시내에도 곳곳에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으나 성장하고 있는 도시의 활기참을 느끼기에는 부족했음.
 - 자카르타 시내를 이른 아침시간과 늦은 밤을 제외하고는 정체가 매우 극심하며, 정체가 아주 심한 시간대에는 4km 정도 이동하는데 4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음.
 - 인도네시아 인구가 많고 평균 연령이 낮아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장이지만 빈부 차이가 심하고 실업률이 높음. 도로에서 버스에 올라타 연주를 해주고 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자카르타 시는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특정시간대에 도시 중심으로 들어가는 차들은 일정 인원 이상이 탑승을 해야 진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시 입장 자체가 거부되거나 벌금을 내야하므로 이를 이용한 일자리가 있음. 아침 출퇴근 시간 길가 쪽에는 몇 명이 추가 탑승이 가능한지를 손가락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즐비한 광경을 볼 수 있음.
 -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긴 하나 사회문화적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열대성 기후에 대낮에 내리는 스콜까지 있어 작물들이 쉽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나 이 때문에 작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 같음.
 -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먹는 열대 과일들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가졌으나 생각보다 과일 당도가 낮고 맛이 없어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수준이었음. 짧은 기간과 한정된 장소에서의 경험으로 쉽게 판단하긴 어려우나 우리나라 마트에서 파는 과일들의 품질이 더 좋다고 생각됨. 출장 기간 중 동행한 농식품부 시장조사단도 베트남산에 비하면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며 이와 유사한 판단을 하였음.

- 필리핀에서 수입되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은 다국적 기업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준은 미흡하나 과일, 채소 등도 개인 소작농에서 플랜테이션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Value Edi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인도네시아산 농산물의 품질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됨.

- 열대성 작물들은 국내 온대성 작물과 경합하기 보다는 열대성 작물들끼리 시장 점유율 경쟁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고추, 양파 등의 작물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추의 경우, 우리나라 고추 종자를 베트남으로 가져가서 재배하여 신선, 건조, 냉동으로 나온 상품이 COEX에서 열린 식품박람회에 전시되기도 하였음.

○ 일-인니 FTA에서 일본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관심품목이 많은 08류(과실 및 견과류)를 감귤류를 제외하고는 즉시철폐로 높은 수준으로 양허를 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온대성 작물(사과, 배, 복숭아, 감 등)에 대한 양허를 파격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관심이 많은 열대성 작물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양허해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또한 양허는 해주되 협상의 레버레지로 삼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허를 할 수도 있음.

- 인도네시아는 도서가 많은 국가이며 국력이 강하지 않아 개발은 미미한 수준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생활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한 예로, 자카르타 시내에서 자동차로 1~2시간 거리에 있는 뿐작 지역의 농장의 1인당 인건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수준임.

- ODA, 농업협력에서 양적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농촌 성장 노하우 및 농업기술 전수, 2차 가공 공장 건설 및 운영 등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양국은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부록 1. 인도네시아 개황

일 반 사 황	국 명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민족/언어	종족 : 자바족(45%), 순다족(14%), 아체족, 바딕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언어 : 인니어(국어), 영어, 네델란드어
	기 후	열대성몬순기후, 고온무풍다습: 년평균기온 : 25-28℃(자카르타 32-33℃), 습도 : 73-87% . 우기(10월 말~3월), 건기(4월~10월 중순).
	면 적	190만km ² (한반도의 9.3배)
	인 구	2억 3천만 명 (세계 4위, 인구증가율 1.4%): 자와 1억 1,500만명, 수마트라 4,100 만명, 칼리만탄 1,000만명, 술라웨시 1,400 만명, 이리안자야 200만명
	수 도	자카르타(인구 약 1,050만 명, 면적 662km ²)
	시차	동부, 중부, 서부의 3지역으로 동부의 이리안자야는 우리나라 와 동일, 발리와 칼리만탄, 술라웨시 등은 우리나라보다. 1시간 이 늦고,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와 수마트라는 2시간이 늦 다.(한국 저녁 8시= 발리 저녁 7시
	주요섬	자와, 칼리만탄, 수마트라, 술라웨시, 이리안자야(빠뿌아)
정 치 제 도	종 교	회교(87%), 기독교(6%), 가톨릭(3%), 힌두교(2%), 불교(1%), 기타.
	국 경 일	8월 17일(Independence Day)
경 제 지 표	국가형태	대통령중심제
	화폐단위	Rupiah(US\$ = 9,400 Rupiah, 2005.3.24 현재)
무 역	GDP	2,558억불(2004); 1인당 국민소득 : 1,181불(2004)
	수출입	수출: 697억불(2004) 수 입 : 450억불(2004)
천 연 자 원	주요품목	수출: 6,970,000만불(석유 천연가스, 목재, 고무)수입: 4,500,000만불(쌀, 밀, 직물, 화학제품, 기계류)
	인도네시아는 적도상의 위치한 群島國家로서 넓은 국토에 다양한 광물자원이 풍부 하게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열대작물과 임산물 또한 많다. 주요 자원으로는 원유, 천연가스, 주석, 니켈, 보크사이트, 석탄, 동 등과 같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주석 세계 3위, 니켈 세계 1위의 보유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유리한 지리적·기후적 조건에 힘입어 열대작물과 임산물의 세계적인 공급국이다. 특히 고무와 커피는 세계 2, 3위 생산국으로서 절 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팜오일, 코코아, 차, 사탕수수 등의 생산도 세계에 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록 2. 한-인도네시아 상품 교역 동향

전체 상품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04 (%)
수 출	3,678	5,046	4,873	5,771	7,934	6,000	8,897	242
수 입	6,368	8,184	8,849	9,114	11,320	9,264	13,986	220
수 지	-2,690	-3,138	-3,976	-3,343	-3,386	-3,264	-5,089	189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ITA)

대 인니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0)

(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석유, 석탄	3,218,895	석유, 석탄	8,905,275
2	전기제품	889,151	광석	1,209,862
3	철강	642,191	전기제품	402,761
4	편물	596,610	고무제품	383,521
5	기계, 컴퓨터	575,967	펄프	366,031
6	플라스틱	546,360	귀금속	259,712
7	선박	188,848	니켈	254,968
8	광학기기	167,307	스테인플 섬유	207,647
9	유기화합물	161,441	무기화합물	187,640
10	필라멘트 섬유	142,475	철강	175,041

* 자료원 : 관세청 수출입 통계

부록 3. 한-인도네시아 농수산물 교역 동향

농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04 (%)
수 출	합 계	42	52	64	70	88	69	93	224
	- 농산물	35	40	52	57	68	52	77	220
	- 축산물	1	1	1	1	2	0	0	0
	- 임산물	2	5	4	3	7	3	7	350
	- 수산물	4	6	6	9	11	14	9	225
수 입	합 계	387	397	389	468	614	660	880	227
	- 농산물	119	115	135	184	324	232	286	240
	- 축산물	1	1	1	1	1	0	0	0
	- 임산물	238	247	217	228	213	361	530	223
	- 수산물	29	34	36	55	76	67	64	221

* 자료원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대 인니 농수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0)

(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커피조제품	20,651	야자유	61,070
2	자 당	13,623	박류(밀)	33,839
3	사료용 조제품	10,766	팜넛 유박	26,563
4	혼합조제식료품	5,429	사탕수수 당밀	24,323
5	기타 수산물분	5,138	야자, 코프라박	20,835
6	옥수수 전분	4,970	팜유	18,631
7	대두박	4,186	기타 어류	13,613
8	새의 숨털	4,118	참치류	11,453
9	쇼트닝	1,696	커피	11,014
10	라 면	1,235	전갱이	8,185

* 자료원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부록 4. 인니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내 점유율

인니 농수산물의 한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07~'09년 평균)

(단위 : 천불)

구분	수 입 액		비중(B/A, %)	비고
	대세계(A)	대인니(B)		
농산물	15,477,147	227,494	1.46	* 축산물 포함
수산물	2,910,834	66,052	2.26	

인니 농수산물의 한국 수입시장 내 주요품목 점유율('07~'09년 평균)

(단위 : 천불)

구분	세번	품명	관세 (‘10)	수입액		비중(B/A) (%)
				대 세계(A)	대인도네시아(B)	
농산물	0506901090	뼈(기타 동물의 것)	3	80	77	95.4
	1513191000	야자유(정제유)	3	58,350	53,646	91.9
	2302300000	박류(밀의 것)	2	63,545	41,609	65.5
	2306600000	팜넛 또는 핵의 것(오일케익, 유박)	2	67,324	35,486	52.7
	230650000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오일케익, 유박)	2	77,534	29,228	37.7
	1703109000	사탕수수 당밀(기타)	3	86,005	20,948	24.4
수산물	0305202000	어란(건조)	20	425	409	96.2
	0303797000	전갱이(냉동)	10	4,775	3,659	76.6
	0302340000	눈다랑어(신선,냉장)	20	74	51	73.4
	0303799094	밀크피쉬(냉동)	10	563	355	63.1
	0303610000	황새치	10	15,087	6,343	42